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보존기록 평가론의 전환*

Transforming Archival Appraisal in Digital Environments

이승억(Lee, Seung-eok)** · 설문원(Seol, Moon-won)***

1. 머리말
2. 평가 환경의 변화
 - 1) 디지털 정보기술 시대의 기록관리
 - 2) 데이터 형 기록의 구조와 평가
3. 근대 보존기록 평가론의 방법론적 한계와 의미
 - 1) 평가 방법론으로서 분석과 종합
 - 2) 평가론의 비교분석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미
4. 보존기록 평가론의 전환과 과제
 - 1) 데이터 분석 기반의 보존기록 평가 패러다임
 - 2) 탈 중심 평가체제로의 이행
 - 3)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존기록 평가 전문성 모형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3036149).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yise@korea.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eol@pusan.ac.kr) (교신저자).

■ 투고일: 2020년 12월 31일 ■ 최초심사일: 2021년 01월 05일 ■ 최종 확정일: 2021년 01월 22일

■ 기록학연구 67, 57-97,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67.057>

〈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보존기록 평가론의 전환에 관한 탐구이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데이터 형 기록의 양산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술 시대의 보존기록 평가는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평가에서 '선별'의 의미는 줄어들 것이다. 그에 따라 기존의 평가론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정보기술의 사회적 확산으로 국가기록원 중심의 평가가 탈 중심화되는 현상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존기록 평가를 위한 전문성 또한 디지털 기술에 맞게 새로운 전문성 수용 모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기존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평가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주제어 : 보존기록 평가, 정보 하부구조, 데이터 형 기록, 디지털 정보기술, 정보 하부구조, 보존기록 평가 방법론, 보존기록 평가론, 국가 보존기록관, 기록 전문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nsformation of archival appraisal theori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It is clear that the archival appraisal in the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era, characterized by the mass production of data type records on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will b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before. As the meaning of selecting in appraisal will be reduced, the existing archival appraisal theories need to be reviewed again. We can expect the decentralization of appraising centered on the national archives, considering the social proliferation of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Meanwhile, expertise in archival appraisal will also be changed to a new professional acceptance model for digital technology. Digital technology will give us opportunities for a paradigm shift that may be difficult to understand with existing thinking of archival appraisal.

Keywords : archival appraisal, data type records,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infrastructure, appraisal methodology, archival appraisal theory, national archives, archival records professionals

1. 머리말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기존의 보존기록 평가론은 과연 적절한가? 평가의 대상과 가치 그리고 필요한 전문성이 달라질 필요는 없는가? 기존의 보존기록 평가론이 근대 기록학의 산물이라면 패러다임의 전환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들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정보기술이 보존기록 평가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근대 기록학에 뿌리를 둔 보존기록 평가론의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보존기록 평가 전문가인 아키비스트가 등장한 것은 20세기의 일이다. 이들은 주로 정부기관에서 기록 평가를 담당하였다. 20세기 초 대량 생산된 정부기록의 보존비용 때문에 대규모 감축 및 가치 있는 기록의 선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 신흥 전문직의 부상도 이와 관련이 있었다(Schellenberg 1956, 29-30). 쉘렌버그는 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아키비스트가 정부조직에서 가치 있는 기록의 선별과 관련한 직무 권한을 갖도록 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쉘렌버그의 유산은 더 이상 공고하지 않은 듯하다. 미국 아키비

1) 기존에는 보통 평가와 선별을 합쳐 '평가선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는 기존의 평가가 선별과 보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 대역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평가와 선별은 별개이며 영어 문헌에도 appraising과 selecting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이 글의 논지는 평가에서 선별에 대한 의미를 재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선별 대신 평가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스트협회(SAA)는 1986년 보존기록 평가를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규정하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언명에는 일정한 위기감이 담겨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아키비스트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공정성은 사회·정치적으로 다원화된 1960년대 이후 대두되었고, 전문성 문제는 주로 디지털 기술로 인한 것이었다. 21세기를 맞은 아키비스트들은 왜 자신들이 평가를 계속 주관할 필요가 있는지 보다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했다. 2005년 SAA가 발간한 책에는 이와 관련하여 볼스의 완곡한 언급이 다음과 같이 담겨 있다.

아키비스트가 평가의 책임을 맡는 이유는 그것으로 사회를 온전하게 재현하는 선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선별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며 설사 결함이 있더라도 아키비스트가 관장하는 것이 선택 가능한 최선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Boles 2005, 10).

아키비스트의 주도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낙관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당시 환경이나 여건에서 최선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최선의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론적 정합성, 프로세스의 효율성 아니면 위의 서술 그대로 사회적 필요성인가? 쉘렌버그 패러다임의 정착 과정을 보면 세 가지 모두일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최선의 평가 메커니즘을 입증하려면 기록학에서 공학에 걸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머지않아 데이터 형 기록이 주류가 될 디지털 환경에서 평가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 모색하려면 정보기술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는 시각에서 평가론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데이터의 대량 생산과 저장이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그 비용이 획기적으로 저렴해진 것에 기인한다.²⁾ 새로운 보존기록 평가는 이 방대한 데이터 형태의 기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디지털 이전의 보존기록 평가는 전적으로 기록전문가가 처리하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관리 분야 전반에 지능화된 기계 즉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어 그것으로 인한 지각변동이 이미 시작되었다. 물론 보존기록 평가도 예외는 아니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보존기록 평가의 변화를 정보의 생산과 저장, 활용 등 시대성이 반영된 정보사회사적 시기 구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데이터 형 기록(data type records)’³⁾이라는 용어를 통해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을 반영한 기록 유형을 제안하고 그것을 통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기존 보존기록 평가 방법론과 이론들을 추적하여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의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의 보존기록 평가론의 전환과 과제를 과학 패러다임, 국가 보존기록관과 평가 전문가의 위상 등 세 영역의 변화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인공지능을 다룬 「라이프 3.0」의 저자 테그마크는 최초 컴퓨터가 등장한 이래 지난 60년간 메모리 값은 매 2년마다 반으로, 하드 드라이브 값은 1억분의 일이 되었고, 빠른 연산에 유용한 메모리 값은 10조배 저렴해졌다고 하였다. 이 정도의 가격 하락은 뉴욕의 모든 부동산을 10센트로 또 당시까지 채굴된 모든 금을 1달러에 살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도 있다(Tegmark 2017, 2장).

3) 이 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형 기록’은 문자, 숫자, 영상, 이미지, 소리 등을 담은 비정형, 반정형, 정형 데이터의 각종 특성과 어떤 활동의 배경과 내용, 생산 일시, 생산자, 유지과정과 같은 기록학적 증거의 성격이 결합된 복합적인 논리적 실체의 기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 형 기록에는 기존에 없었던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기록의 생산이나 의미 있는 작동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는 알고리즘 데이터가 그것이다. 알고리즘 데이터는 평가와 관련한 새롭고 중요한 이슈이다. 다만 이 글의 논지와 다소 다른 논점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2. 평가 환경의 변화

현재 논의되는 대부분의 보존기록 평가론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근대적 기록관리의 산물이다. 여기에는 기록학의 보편적 원리와 함께 공공 기록의 대량생산, 보존 공간의 부족, 업무적 가치 등 당대의 기록 관리 여건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기존의 평가는 적용에 무리가 있거나 때로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정보기술의 특성에 따른 평가의 변화를 정보사회사적 시기 구분과 데이터 형 기록의 미시적 구조의 특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디지털 정보기술 시대의 기록관리

인간이 의사소통에 사용한 기록 정보의 특성은 각 시대가 도달한 ‘정보 하부구조’⁴⁾의 수준에 조응한다. 월터 옹(Ong)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저서에서 구술에서 문자의 사용으로 변천되는 과정을 밀도 있게 묘사한 바 있다.(Ong) 문자 시대는 다시 수기(手記)와 인쇄기술 시대로 나눌 필요가 있어 디지털 정보기술 이전의 구분은 크게 구술, 수기, 인쇄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문자시대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기원전 3천 5백년을 시점으로 잡을 수 있으며, 인쇄시대는 8세기에서 20세기 걸쳐 길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 목재와 금속 등의 기록 재질과 프레스, 오프셋 등 기술의 발

4) 정보 하부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이 본격화 되면서 1990년대 주목받은 용어다. 정보기술 시대가 되면서 의미와 저장 둘의 메커니즘은 구별이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정보의 저장과 연산 장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것이 정보기술 시대의 특징적 현상이 되었다. 다만 ‘정보 하부구조’라는 용어는 정보를 사용한 모든 시대에 범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안 아키텍처 전문가 피론티(J. Pironti)는 정보 하부구조를 정보의 생성, 활용, 전송, 저장, 파기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사람, 프로세스, 절차, 도구, 기능, 기술 등의 전반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wikipedia). 이러한 정의와 함께 이 글에서는 정보 하부구조를 구술, 수기, 인쇄, 정보기술 등 네 가지로 구분한 스킨드의 견해도 참조하였다.(Susskind & Daniel Susskind 2015, 4장)

전과 혁신이 지속되었다. 정보기술 시대는 최초 컴퓨터가 발명된 1940년대를 시점으로 인터넷이 등장한 1970년대에 정보기술 시대의 기본적인 특성이 성립되었다.

구술, 수기, 인쇄기술, 정보기술 등 네 시대는 다시 인간기억의 구술시대와 인공기억인 나머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록 관리의 역사는 인공기억이라 할 기록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구술에서 문자시대로의 변천이 갖는 기록학적 성격은 한마디로 기억의 외재화(外在化)이다. 문자 사용으로 인간의 기억이 매체에 담겨 공동체가 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정보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대신 기록을 통해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었다. 기록은 생산자의 기억이나 의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하게 해석되어 활용되면서 가치의 관념도 복잡해졌다. 수기시대를 이은 인쇄기술 시대의 특징은 대량 생산이다. 구텐베르크의 15세기 인쇄술로도 성경 한 권이 필사될 동안 180권의 성경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기록 생산성의 혁신은 세속 영역 특히 비대해진 정부 조직에 적용되어 19세기 말 20세기 초 기록 대량 생산의 요인이 되었다. 기록 생산 조직의 비대화와 복잡화는 기록의 생산 맥락을 구조화하는 인식을 낳았다. 근대 기록학의 원칙들 즉, 생산 출처별 원질서 존중 원칙이 그 산물이다. 이 원칙은 모두 보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진 기록 중에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준거가 되었다.

그런데 인쇄기술 시대에 이은 정보기술 시대에는 또 다른 미증유의 대량 생산 양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문자시대의 변화 즉, 기억의 외재화, 대량생산, 맥락의 구조화에 더해 ‘수적(數的) 수렴’과 재현 즉,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로 요약 할 수 있다.⁵⁾ 디지털 컨버전스는 기록 생산의

5) 여기에서의 ‘수’는 단순한 계량적 수를 넘어 자연적·사회적 현상이 치환된 수를 의미한다. 20세기 초 수학과 논리학의 결합으로 세계의 수적 치환 범위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법한 질적 차이를 갖는 상황이나 행위를 논리 형식의 즉 수학적 산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를 의미하는 것이 수적 수렴을 통한 존재론적 디지털 컨버전스이다(이종관·박승익·김종규·임형택, 2013, 34-38)

주체인 인간의 의도가 기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흔적과도 같은 사실들이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형 기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했다(이승억, 설문원 2017, 10-12).

평가와 관련한 정보기술 시대의 특성은 기록에 관한 ‘서사성(Narrativity)’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술시대의 서사성은 구술자인 생산자가 그 중심이었다. 구술시대에는 정보 생산자가 제시하는 폐쇄적 의미계통이 있었을 뿐이다. 문자시대가 되면서 이 폐쇄적 의미계통은 문자화된 정보의 기록자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다양한 해석에 개방되었다.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은 기록자보다 독자(讀者)를 더 우위에 두기도 했다(이승억 2013, 196~197). 인쇄기술 시대 기록의 서사성에서는 복잡해지고 구조화된 기록 양식에 따라 기록의 생산과정이나 생산자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근대 기록학의 평가에서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가장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이었다. 이와 같이 해석에 기반 한 인쇄기술 시대의 기록의 서사성은 정보기술 시대에 와서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정보 하부구조의 확장으로 인한 방대해진 정보 세계에서 해석에 대한 전통적인 아키비스트의 재량권은 희석되고 있고, 중국에는 데이터 세계에서 얻는 통찰력(insight)을 추구하는 새로운 전문성에 그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이상의 기록관리 시대별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록관리의 시대 구분과 특성

구분	시기	기록의 서사성	기록학적 특성	정보저장
구술시대		구술자	기억의 비전(秘傳), 개별화	인간기억
수기시대	BC 4세기	생산자 및 독자	기억의 외재화(外在化), 공유	인공기억
인쇄기술 시대	AD 8세기	생산에 대한 해석자	구조화된 맥락(출처, 원질서)	
정보기술 시대	1940년대 이후	설계된 생산과 해석자	기록화 대상 확대와 ‘수적 수렴’	

근대 기록학에서의 보존기록 평가론은 인쇄기술 시대 후기의 산물이다. 물론 종이기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으로 전자화 문서 기록도 여기에 포함된다. 종이 서식을 전자화한 문서 기록은 정보기술 시대 시작이 아니라 사실상 후기 인쇄기술 시대의 마지막 산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업무에 있어서도 달라질 것이 적다. 그렇지만 전자문서와 성격이 다른 데이터 형 기록의 시대는 이미 도래 했고 그에 따라 평가업무도 전환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록이라 할 데이터의 생산과 항목 단위에서의 복합 연계가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면서 물리적 선별과 보존은 비효율성 여부를 떠나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편이 옳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2) 데이터 형 기록의 구조와 평가

기록은 표현을 위한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자 기록에서 구조는 또 하나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종이문서 기록은 각 문서, 문서를 묶은 철, 문서철을 배치한 서가 그리고 서고와 보존소에 이르기까지 계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 계층들도 구조로 볼 수 있다. 기록 유형에 따라 구조의 특성은 다르다. 문서 단위 종이기록의 구조는 해당 기록의 물리적 실체를 반영하는 경직성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 반면 디지털 정보의 표현에서 구조는 해체에 가까울 정도로 경직성이 완화되었다. 예를 들어 웹 사이트 페이지는 면 구분이 없어져 면과 편철이라는 기록의 오래된 구조가 해체되었다. 극단적 해체는 데이터 수준에서 나타난다. 데이터의 세분화된 항목은 필요에 따라 세트로 구성되어 의미 있는 정보로 조합된다. 이 구조는 명령 등 일정 조건에서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논리적 특성을 갖는다. 종이기록의 서식이 기록의 물리적 실체인 반면 데이터 형 기록의 서식은 원천 데이터 항목의 요소들이 임시로 구성되어 표현된 것이었다.

이러한 구조의 임의성은 당연히 평가 대상의 단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일정한 규격이나 포맷의 파일 단위 기록은 임의로 조합된 산물이다. 평가를 파일 단위로 하더라도 파일을 구성하는 원천은 분할 가능한 데이터의 항목인 것이다.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는 그 표현이 마치 종이문서 서식이라는 느낌을 주지만 사실 이는 종이문서 시대의 관념적 잔재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것은 각종 데이터가 조합된 디지털 파일이며 따라서 종이 문서처럼 별도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

데이터 형 기록들은 항목들을 공유하면서 상호 연계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중요하다. 정보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시스템에 수백 개, 때로는 수천 개가 넘는다. 이 데이터베이스들은 항목 차원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일정한 명령에 따라 데이터세트가 구성된다. 이렇게 다중 연계된 데이터세트 평가에서는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 특정 데이터세트의 일부 구성 요소가 다른 데이터세트와 공유하는 경우 이 중 어느 한 데이터세트를 처분하면 다른 데이터세트가 구성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데이터세트 단위로 평가하더라도 물리적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데이터세트의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⁶⁾

데이터 형 기록은 임의적 구조의 논리적 실체로서 여러 데이터세트와 다중 연계되어 있는 많은 항목들이 원천이다. 객체 단위의 평가는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시스템 단위 데이터 전반이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별과 보존은 평가와 별개 문제이다. 이상과 같이 데이터 형 기록의 평가는 구조의 임의성과 데이터 항목들의 다중연계로 인해 객체 단위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대신 거시적인 기능이나 시스템 단위, 경우에 따라서는 연계된 다수 시스템 단위로 평가해야 한다. 한시적으로만 필요하더라도 해당 데이터만 삭제하는 것은 곤란하며, 대체로 시스

6) 국가기록원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도 이를 고려하여 시스템이나 '단위기능' 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되 그 집행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상관관계에 따라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가기록원, 2020, 4-5)

템의 갱신 등에 의한 데이터의 일괄 처분 시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데이터 형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의 실행은 그것을 생산한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치의 측면으로만 계획한 평가는 기록을 생산한 정보시스템의 작동 메커니즘과 맞지 않을 경우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평가 절차 자체가 컴퓨터를 사용해 이루어지는 만큼 컴퓨팅 환경에 대한 평가 주체의 이해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데이터 형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평가 계획에는 가치나 의미 분야와 함께 원활한 평가 실행 위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 컴퓨팅 환경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근대 보존기록 평가론의 방법론적 한계와 의미

근대 기록학이란 프랑스 대혁명 당시 봉건 ‘구체제’ 기록의 처리에서 출주의가 대두된 이래 19세기 말 네덜란드에서 나온 원질서 존중의 기록 처리(processing) 원칙, 20세기 초 젠킨슨의 속성론, 쉘렌버그의 기록 가치론 등 좀 더 진전된 학문 체계, 그리고 20세기 중후반 사회적 기록화의 실천주의 논자들의 주장과 기능분석론 등 기록의 관리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실무론 일체를 말한다. 근대 기록학의 핵심 분야인 보존기록 평가론이 인쇄기술 시대 후기의 산물이라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선별과 보존을 통해 보존기록을 구축하는 기존 평가 방식이 데이터 형 기록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앞 장에서는 디지털 기술 고유의 특성에서 대두된 점을 부각했다면 본 장은 전통적인 평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변화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1) 평가 방법론으로서 분석과 종합

보존기록 평가의 본질은 기록 가치의 판별이다. 평가와 기록 가치의 성격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록 생산 목적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가치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한 사건이나 사물 같은 생산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 기록과 접목되었을 때 알 수 있는 가치이다. 셸렌버그는 기록을 보존기록관에 보관할 이유를 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증거 그리고 개인과 법인, 사건, 문제 조건 등에 대하여 기록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로 구분하였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다(Schellenberg 1956, 31).

이러한 두 계통의 가치는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과정이나 결과가 달라진다. 가치에 접근하는 방법론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를 각각 ‘분석적(analytic) 방법’과 ‘종합적(synthetic) 방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분석’과 ‘종합’은 논리학에서 명제의 성격을 구분한 것을 참조한 것이다. 분석명제는 명제의 주어에 술어가 포함되어 한 명제의 진술 안에서 진위의 증명이 가능한 명제이다. 이에 비해 명제의 진위가 진술 외부의 경험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 종합명제이다.⁷⁾ 기록을 생산한 목적을 기록의 가치에 수렴하는 평가는 생산 메커니즘의 내적 연쇄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분석적 방법의 평가’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록 생산과 직접 관계없는 역사적 사실이나 경험을 특정 기록의 가치에 접목하는 평가는 ‘종합적 방법의 평가’라 할 수 있다.⁸⁾

분석적 방법의 평가는 기록을 생산한 직접적 요인에 근거하여 그 가치

7)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다”는 주어와 술어가 동일함으로써 입증되는 분석명제이다. 이에 비해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좋아한다”라는 명제는 그 진위를 외부의 경험을 통해야만 알 수 있는 종합명제이다.

8) 분석명제와 종합명제의 구분을 비판한 의견도 있다. 논리학자 콰인(W. Quine)의 주장이다. 예를 들면 ‘토끼는 귀가 큰 동물이다’는 진술로 진위 판단이 가능한 분석명제이다. 그러나 귀가 상대적으로 작은 토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종합명제의 성격도 갖게 된다. 평가에서도 분석과 종합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형식적 구분에 기초해서 논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생산 주체, 목적, 활동 등을 입증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종합적 방법에 비해 평가의 맥락이 좁다고 할 수 있다. 대신 특정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생산 외부 경험을 배제함으로써 결론 도출이 비교적 용이하고 명료하다. 기능 분류체계와 접목하여 생산과 동시에 또는 생산 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주의나 원질서 존중 같은 고전적 기록관리 원칙은 분석적 방법과 밀접한 것이다. 분석적 방법의 예는 19세기 독일 행정체위계론이나 쟈킨슨의 속성론, 쉘렌버그의 가치론 중 1차 가치와 2차적 증거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네덜란드 기능평가인 PIVOT, 캐나다 거시평가 중 정부기능 분석 파트도 사례가 될 수 있다(Horseman; LAC 2001). 또한 최근 채택된 국제표준 ISO/TR 21946 「기록관리를 위한 평가」 중 ‘업무 및 법적 요구사항’도 여기에 해당한다(ISO 2018, 5.11.1).

종합적 방법은 생산의 관련성 여부에 상관없이 특정 인물이나 사물, 또는 사건이나 경험을 중시한다. 쉘렌버그의 2차적 정보가치, 독일 뵘스의 ‘기록화 계획’이나 미국의 ‘기록화 전략’ 등 동시대적 사회표상론 그리고 캐나다 거시평가 절차 중 정부의 기능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동역학(dynamics)을 분석하는 파트도 그 예라 할 수 있다. ISO 21946 중 ‘지역사회 또는 사회적 기대’ 항목도 종합적 방법과 같은 계통이라 할 수 있다(ISO 2018, 5.11.1). 이상의 분석적 방법과 종합적 방법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분석적 방법과 종합적 방법의 평가 비교

구분	분석적 방법	종합적 방법
기록의 의미	생산의 시정과 기록에 기술된 내용과의 관련성에 주목	생산과 무관한 외부의 중요한 대상과 기록의 내용과의 관련성에 주목
기반지식	생산에 관한 지식	생산 외부의 경험적 지식
결과의 정당화	비경험적, 사전적	경험적, 사후적
생산분류체계	부합성 높음	낮거나 불일치함
작업목표	법, 행정적 이유의 설명책임성과 그에 부합하는 필요 보유기간	사회적 요구에 접목되는 기록 확인

작업대상	생산 출처 기록 일체	외부 경험과 관계되는 특정 기록
협업대상	생산 기관 내부	학자, 정치·사회단체 등 생산기관 외부의 관여, 조정

분석과 종합적 방법의 평가는 같은 대상이라도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다. 두 방법의 특징은 아래 <표 3>의 예시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예시는 실제 기록 생산처와 역사적 사건을 참고했다. 기록 생산처는 서울 청와대 인근 육군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단이며, 사건은 1979년에 일어난 12·12 군사반란 사건이다. 12·12 군사반란은 1980년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로 국가 권력을 찬탈한 사건의 시작점으로 당시 경비단장은 반란에 적극 가담했다. 예시로 들은 기록은 각 경비단 출입문 경비 근무 중 작성된 「차량출입대장」이다.

<표 3> 분석적 방법과 종합적 방법의 사례 비교

<p><분석적 방법의 평가> 「차량출입대장」은 부대 출입 초소가 부대 존속기간 중 일시의 중단 없이 작성된 기록이다. 본 대장에는 부대 출입 차량 통제 과정에서 작성된 출입 일시와 차량번호, 근무자, 상급 검토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기재 내용을 고려하여 이 유형으로 생산되었거나 생산 예정인 기록 일체를 초소경비 임무에 대한 점검, 감사 등을 위한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최소 5년간 보존한다.</p> <p><종합적 방법의 평가> 「차량출입대장」에는 부대에 출입하는 공사(公私) 모든 차량 번호와 민간 차량의 경우 방문하는 곳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1979년 대통령 암살사건 당일인 10월 26일에서 12월 12일까지의 본 대장에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 사건인 12·12군사반란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은 군인과 민간인들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 본 기록의 사건 관련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존기록으로 영구보존한다.</p>

이처럼 같은 기록이라도 분석과 종합에 따라 가치의 성격은 달라진다. 두 방법이 단일 기준이나 절차로 통합되기는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석적 방법의 평가는 생산된 또는 생산할 기록의 필요 기간을 정하는 것

인 반면 종합적 방법의 평가는 사건과 접목되는 기록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다만 종합적 방법의 평가는 쉽지 않다. 어떤 사건이 중요해졌을 때 관련 기록은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⁹⁾ 그만큼 생산 시점에 외부 경험이 접목되기는 어렵다. 사회표상론은 동시대적 가치를 지향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난점을 안고 있었다. 종합적 방법의 또 다른 문제는 경험의 해석과 선택에서 편파성 논란이 야기되기 쉽다는 점이다.

종합적 방법의 평가가 20세기 후반 기록의 사회적 의미 추구라는 중요한 궤적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햄을 비롯한 다수의 기록학자들은 아키비스트들이 남겨놓은 보존기록이 사회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깊이 공감했고, 이에 동시대 이슈에 대하여 다수의 보존기록관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기록화 전략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취지와 별개로 실제 성공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에이브러햄(Abraham)은 자원 부족과 각 기록관의 자관 중심적 관행을 실패 이유로 보았다(Abraham 1995). 쿡은 개념적으로 고안된 ‘주제’를 기록화의 범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Cook 1992, 186). 기록화 전략을 위한 프로젝트에 모인 인류학을 비롯한 분야별 학자들은 기록화 대상 주제를 합의하는 단계부터 순조롭지 않았다(Cox, 1989).

그런데 1980년대 당시로서는 주제 기반의 기록화와 거기에 맞는 기록을 찾는 일종의 하향식(top down) 방식이 불가피했다고 생각된다. 광범위한 정보의 획득과 이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은 정보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아직 곤란했을 것이다. 자원 부족과 보존기록관들의 비협조가 외적 실패 요인이었다면 이러한 정보기술적 한계는 내적 실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정보기술 시대의 정보 하부구조는 사회표상론의 실행 여건에 긍정적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

9) 실제로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가 차량 출입기록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쉘렌버그는 기록에 담긴 인물, 사물, 사건 등 사실을 중시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의 중요성은 보통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어려움은 쉘렌버그도 그의 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았나 생각된다.(Schellenberg 1956, 37-43)

면 공공, 민간을 구분하지 않는 정보 하부구조의 확장이 방대한 분량의 사회 동향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과 해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 경험을 기록 평가에 접목하는 종합적 방법의 평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⁰⁾

그런데 정보 하부구조의 확대는 기존의 평가를 개선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하는 데까지 진전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보 하부구조의 확장으로 특정 기록을 선별 보존하는 방식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평가와 선별을 일치해 온 기존 방식의 평가를 재고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데이터 형 기록 생태계에서 분석 및 종합적 방법은 데이터의 양적 팽창이 질적으로 비약하여 각 방법론에 해당하는 특성적 기록을 식별하는 협소한 작용을 넘어 다양한 계통의 의미를 확인하는 추론 방법으로 통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평가론의 비교분석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미

근대 기록학의 평가론은 젠킨슨과 쉘렌버그 등으로 대변되는 20세기 전 반기에 본격화되었다. 그 다음은 1960년대에 대두되어 1980년대 전성기를 거쳐 1990년대까지 이어진 사회표상론의 시기이다. 이 때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 시대 인간의 경험을 담은 대표적 기록의 후대 제공’이라는 햄의 1975년 언명이다(Ham 1975, 5). 전자기록과 함께 1990년대는 기능평가론이 제기되었다. 이후 가치와 표상을 논하는 평가론의 전통적 논의는 소강상태가 된 듯하다. 듀란티가 이론적 논의의 침체로 본 이 담보상태는 디지털 기술

10) 인물이나 사건 등의 사실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 관련 기록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문제는 정보 하부구조의 확장으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저장 기술이 크게 향상되고 케이스별 촘촘한 선별 폐기가 곤란한 데이터 형 기록관리 여건상 기록이 좀 더 오래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 SNS 등을 통해 어떤 사건 발생과 그 사회적 반응의 기록화가 거의 동시대적으로 일어난다는 점도 종합적 방법의 평가의 달라진 여건이 될 것이다.

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Duranti , 278).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가론 추이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 이르는 변동기 즉, 기존 이론들이 여전히 유효하면서도 디지털 기술이 점차 규정적 요인이 되어가는 시기에 이론 추이를 정리한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견지에서 여기에서는 1991년 햄, 2005년 볼스 그리고 2013년 쿡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정리들은 각각 그것이 나온 시기의 특징들을 담고 있는데, 우선 1991년은 근대 기록학 고유의 사고 위에 새로운 전자기록 시대가 아직 본격화되기 전 다시 말해 아직 기존 이론에 대한 회의가 덜한 시기이다. 이에 비해 2005년은 새로운 평가론의 논의는 담보 상태인 반면 디지털 기술의 규정성은 구체화되어 가는 시점이다. 2013년은 비로소 본격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거론되는 단계이다.

먼저 햄의 정리를 보자. 1991년 SAA가 발간한 「보존기록의 평가와 선별」에서 햄은 당시까지의 평가론을 여섯 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Ham 1991, 23-37)¹¹⁾ 첫째는 쉘렌버그의 기록 생애주기별 가치론이다. 두 번째는 젠킨슨의 생산과 생산자를 중시한 속성론이다. 세 번째는 기록을 생산한 기관에 대한 기록화로서, 기관의 행정적 책임과 연혁을 중시한 증거 우위의 평가론이다. 생산 기관의 자체 기준과 분석한 결과로서의 기록화를 지향한다. 네 번째는 역사 연구를 위한 평가론이다. 이는 역사 연구의 직관과 추론 그리고 장래의 효용이라는 개연성에 의존하는 것인데, 한계가 있으면서도 햄은 다양한 입장을 용인할 수 있는 점에서 장점도 있다고 보았다. 다섯 번째는 이른바 사회표상론으로 사회에 대한 대표성 있는 기록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동시대성과 다수 기록관리 기관의 공조 그리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중시한 기록화 전략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11) 책이 나온 1991년은 전자기록이 본격화되기 전이었지만 정보시스템에 주목하는 이후 문제의식의 원형이라 할 것이 제기되었다. 책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ISO15489의 전신인 호주 국가표준 AS 4390(1996) 제정의 계기가 된 전자기록관련 법 전문가들의 Monash 대학 회합(1993)도 이 무렵의 일이다. 디지털 형식으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기능요구사항을 연구하기 위한 피츠버그 프로젝트(1993)도 마찬가지이다.

는 기록학적 적자생존론이라 할 다윈이즘(Darwinism)으로 평가 무용론이다. 이 입장은 전자기록의 경우 생산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키비스트의 개입이 없어도 평균 법칙에 따라 사회적으로 남은 기록은 대략 남은 것이라고 보았다

햄의 정리는 고전적 견해 이래 다양한 이론들을 언급하고 있다. 각 이론들은 종합과 분석의 방법론을 기준으로 특성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 표는 햄의 정리를 분석과 종합적 방법에 접목하여 일별한 것이다.

〈표 4〉 평가론의 방법론적 비교

구분	분석적 방법의 요소	종합적 방법의 요소
셸렌버그주의	1차 가치와 2차적 증거가치	2차 정보가치
젠킨슨주의	생산자와 생산의 맥락	분명치 않음
생산기관 기록화	생산자의 연혁과 행정적 맥락	분명치 않음
역사연구를 위한 선별	분명치 않음	생산이 목적하지 않은 활용 추구
당대 사회표상론	분명치 않음	생산 외적 요인 추구
다윈주의	분명치 않음	분명치 않음

위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기록 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볼 필요가 있다. 종합적 방법의 평가 사례는 기록 획득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동시대인의 가치관’이나 ‘현재 진행 중인 이슈’ 등의 현재적 가치를 지향한 사회표상론은 기록 획득에 성공한 사례가 드물었다. 봄스는 자신이 제안한 기록화 ‘플랜’이 실행조차 되지 못했다고 토로할 정도였다(Abraham 1995). 정보기술 시대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것이 해소되기에는 평가 정보의 부족이라는 근본적 난점이 있었다. 디지털 정보기술 기반의 정보 하부구조 확장에 따른 방대한 사회적 데이터가 평가에 접목될 경우 이것이 종합적 방법의 평가에 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분량의 데이터에 기초한 상향식 방식이 사회적 기록화에도 일정한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 정보기술은 사회에 산재한 기록을 수집하여 분석하

는 수공업적 작업을 방대한 사회적 데이터를 동원하는 양상으로 바꾸면서 종합적 방법의 지평을 넓히는데 일조할 것이다.

분석적 방법은 기능이나 업무 분류 체계라는 도구를 평가와 연동함으로써 현재의 패러다임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관점의 비판도 있다. 마이클 쿡(Michael Cook)은 생산이나 생산자를 중시한 평가는 기록의 보편적 가치 대신 기록을 생산한 모 기관의 활동을 입증하는데 편중된 것이라고 폄하했다(이승익 2005, 47에서 재인용). 실제로 분석적 방법이 생산자를 대변하는 데만 집중하는 경우 이 비판은 타당하다. 그런데 근래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의 보존기록관이 표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비판은 유보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즉 각 기관 사명문에는 공통적으로 정부기관 기능의 기록화와 함께 정부가 사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기록화가 함께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현문수, 2020) 그러나 이것도 수사에 그친다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생산자 스스로 결정해 적용하는 폐쇄회로 같은 평가를 통한 기록화는 어떠한 식으로든 그 결정과정을 공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볼스의 정리로 햄이 집필한 같은 시리즈의 책 2005년 개정판에 실려 있다. 볼스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기보다는 일정한 관점의 입장에서 대비되는 입장을 대조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젠킨슨주의와 쉘렌버그주의를 원천으로 한 배경 중심주의와 내용 중심주의가 그것이다. 쉘렌버그에 대해서는 생산이 의도하지 않은 목적의 사용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에 따라 기록화 전략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생산자에 복무해야 한다는 젠킨슨의 사고를 승계한 견해들을 이른바 '뉴 패러다임'이라고 명명하고, 거기에 듀란티, 호주의 레코드 컨티뉴엄 학파, 캐나다의 거시평가론 등을 포함시켰다. 이 중 테리 쿡이 설계한 캐나다 거시평가는 기능성(functionality)을 수용하면서도 이 기능성이 하나의 구조가 되어 시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뉴 패러다임에 속한 다른 입장과 차별화 하였다(Boles, 11-41).

볼스의 정리에서 주목되는 점은 뉴 패러다임을 전자기록을 다루는 정부 기관 아키비스트의 입장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공공분야의 기록관리에 도입된 디지털 기술이 생산자를 지원하는 것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정보통신 기술이 공공분야에 도입된 이래 각국 정부 기록의 생산 관리는 대규모 정보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2000년대 중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부에 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업무와 기록관리가 결합된 이 메가 시스템에서 기록 가치에 연동되어 있는 ‘단위과제’가 평가 절차에서 갖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 이에 비해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진행되는 기록물 평가 심의 절차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생산기관의 비중이 높은 반면 평가 심의는 외부 의견을 중시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다. 보존기간 책정 절차는 생산기관 주도로 차질 없는 이행이 보장되는 반면 평가 심의 절차는 그렇지 않았다.¹²⁾ 이는 볼스가 정부기관에서 전자기록을 다루는 아키비스트들의 입장이라고 한 뉴 패러다임의 한국식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기관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기울 수 있다는 마이클 쿡의 비판도 함께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시민사회와의 연관성을 중시한 캐나다 거시평가 정책과 그 설계자인 테리 쿡의 견해가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테리 쿡의 정리이다. 그는 증거, 기억,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 등 네 가지 평가 패러다임을 제시했다(Cook 2013). 이 중 ‘증거’와 ‘기억’ 패러다임은 각각 켄킨슨과 쉘렌버그의 방법론에 조응하는 것이다. 정체성 패러다임은 아키비스트의 공정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어 사회를 대표할 수

12) 이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업무 행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은 시스템 탑재 기능으로 어느 정도 신기술 적용이 이루어진 반면 기록물 평가 심의 절차는 기술적으로 기존 종이기록 단계에서 거의 변하지 않아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

있는 상을 담은 기록을 강조하여 사회 패러다임이라고 하기도 한다. 사회 표상론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목되는 것은 공동체 패러다임이다. 디지털 정보기술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공동체 패러다임은 다른 패러다임과 구별된다. 즉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기록 생산과 관리가 개인 수준까지 확장되고, 물리적 위치의 한계가 없어 실재계는 물론 가상계까지 포괄하는 변화가 기록관리에 나타나는 것이 공동체 패러다임이다. 테리 쿡은 공동체 패러다임에서의 ‘공동체’ 개념을 증거와 기억, 정체성이 특별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합쳐진 것으로서 권력 구조의 산물인 기존의 전통적 서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Foscarini, 123-126). 정체성 패러다임에서는 주류 기억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에서의 기록화 주체에 여전히 주목하는 반면 공동체 패러다임은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은 다양성을 인정한다. 쿡의 공동체 패러다임은 정보기술 시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 키워드는 데이터 중심의 기반과 공존하는 다양한 작은 서사들이었다.

햄과 달리 볼스 그리고 테리 쿡의 정리는 보존기록 평가에 디지털 정보기술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양상이 투영되어 있다. 그렇다고 햄의 정리를 무용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예측이 매우 어려운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의 보존기록 평가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존기록 평가와 관련한 가급적 의미 있는 지식을 모두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록이 사회를 반영하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척도는 정보 하부구조가 도달한 수준에 조응한다. 구술에서 수기시대로 다시, 인쇄기술 시대로 발전하면서 기록이 포괄하는 사실의 범위도 나름대로 넓어져 왔지만 정보기술 시대에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인쇄기술 시대의 기록이 생산자의 의도라는 목적의식적 산물이었다면 정보기술 시대의 데이터 형 기록은 광범위하고 방대한 사회적 흔적이 기록화된 것이었다. 디지털 정보기술 시대의 보존기록 평가론에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록으로 남

는다는, 형이상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상화된 기록화에 가깝게 다가선 논의가 이전 어느 때보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이다.

사회든 기관이든 그리고 기능이든 그것을 온전히 담은 기록화는 인쇄기술 시대 평가 이래 기록학자와 기록관리자들의 이상이였다. 미국의 기록화 전략이 '전 사회적 기록 총량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과 수집'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Abraham 1991, 46). 그런데 사회 전반의 정동적(情動的)¹³⁾ 현실을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의 정보가 생산되는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정보 하부구조의 확장에 따라 이것이 인지 가능한 데이터로 저장되어 더욱 증강된 기록적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데이터의 특성상 일정한 가치가 있는 기록을 물리적으로 선별하는 일은 용이하지도 않고 풍부한 기록화라는 이상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 가급적 모든 기록 원천 총량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미를 찾는 대안적 평가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는 패러다임 차원의 변화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4. 보존기록 평가론의 전환과 과제

이상에서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의 보존기록 평가의 변화에 관하여 디지털 기술 고유의 측면과 함께 기록학의 평가론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디지털 기술은 기존 평가론들이 보인 한계를 일정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데이터 형 기록의 고유의 특성이나 보다 큰 맥락에서 볼 때 새로운 기술은 패러다임 수준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평가론의 전환을 패러다임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평가의

13) 정보 측면에서 정동은 “정보 자체가 계속 변용하면서 이동하는 움직임”이며, 최초 정보의 생산자나 최초 정보의 형식과 내용 자체보다는 수용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용되는 전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이토 마모루)

실행 주체로서 보존기록관과 기록 전문가의 위상에 관한 문제도 논의에 포함하고자 한다. 평가의 주체는 기록학의 보존기록 평가에 관한 논의의 주요 논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평가 패러다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각각을 자세하게 다루어야 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여건에서 비롯된 평가론의 전환을 전반적 견지에서 볼 필요가 있어 우선은 함께 묶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 데이터 분석 기반의 보존기록 평가 패러다임

보존기록 평가의 본질은 생산의 맥락이 되었든 그 밖에 사회적인 중요 경험이 되었든 이와 관련하여 어떤 기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기록의 생산과 활용 맥락에 관한 정보 처리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이 일은 기록 전문가 몫으로서 인간의 지적 작업이었다. 볼스는 ‘블랙박스의 탐험’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평가 결정 요인들을 범주화하고 그 관계를 수형도(tree diagram)로 제시한 바 있는데, ‘블랙박스’는 투입한 것과 결과는 알 수 있으나 중간 과정은 알 수 없는 것을 비유한 것이었다(Boles & Young). 그런데 이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할 경우 기록 평가는 더 이상 블랙박스에 비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이 평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 형 기록의 대량 생산이다. 생산 가능한 기록의 규모는 정보의 운반체인 ‘매체(media)’의 발전과 밀접하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저장 매체는 기존 아날로그 매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 저장을 가능케 했다. 그런데 매체학자 키틀러(F. Kittler)는 매체의 개념을 단순 운반체에서 정보의 저장과 전달, 재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했다.¹⁴⁾

14) 매체학자 키틀러(Friedrich Kittler)는 매체를 통한 정보의 저장, 전송, 재현방식이 인간의 감각이나 지각을 변화시키며, 정치, 문화적 상부구조나 경제적 하부구조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아마도 그것은 디지털 매체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유현주, 55-56)

이는 특히 디지털 기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데이터 형 기록과 관련하여 정보의 생산과 처리 전반을 규정하는 기술 포맷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기술 포맷의 발전으로 더욱 많은 분량의 정보 처리가 가능해졌다. 그 이면에는 반도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능케 한 물질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다양한 컴퓨팅 자원의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

방대한 데이터 형 기록은 개별 정보시스템과 다수 시스템 간 연계 환경에서 생산된다.¹⁵⁾ 한국 공공분야의 예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겠다. 한국의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많은 데이터 형 기록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 일부는 기록 관리나 정보공개 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에 연계되어 재현된다. 예산회계나 인사업무 등의 시스템은 역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의 결재나 공람 기능으로 기록을 연계하고, 이는 다른 시스템에 다시 연계될 수 있다. 시스템별 생산량은 물론 시스템 간 연계로 인해 증가되는 생산량도 상당할 것이다¹⁶⁾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계 대상 시스템은 대략 2만개가 넘는다.¹⁷⁾ 여기에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확장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향후 방대한 규모의 사회적 기록 생태계 형성도 예견할 수 있다.¹⁸⁾

15) 여기에는 컴퓨터의 특성상 대규모로 처리되는 것에는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생산되는 데이터 형 기록도 포함된다. 또한 데이터 생산은 디지털 복합기나 자료 공유 장치 같은 사무 편의 장비에서도 일어난다. 많은 개인용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이 기기들은 처리 자료의 사본을 내부 장치에 저장한다. 이는 사본이면서도 상황에 따라 특정 업무의 처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 2019년 한해 공공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이 생산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의 관리 대상인 기록은 약 5억 9천여 건이다. 시스템 연계에 의한 기록도 상당량일 것이며 이것도 경우에 따라 업무활동 과정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기존처럼 관리대상으로 특정된 '기록'은 사실상 최소한의 증거에 불과하다.

17) EA포털 등록 기준으로 2020년 12월 현재 약 만 6천개이며, 교육청 등 포털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합하면 약 2만여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부처로 한정하면 1,744개이다. (www.geap.go.kr)

18) 기존의 기록 생태계는 정부나 민간 등 특정 기록 영역별 물리적 구분이 비교적 분명하며 평가에도 정부, 기업, 개인 등으로 구획된 별개 영역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데이터 형 기록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디지털기록 평가가 종이기록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은 과도기적 발상에 불과하다. 중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¹⁹⁾ 궁극적으로 디지털기록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 틀과 평가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기존 평가절차를 통해 이를 변화의 대략적 특성을 알아보겠다.

기존 평가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특정 기록을 식별하여 다른 기록과 격리하는 절차에 있다. 시작은 이른바 ‘비 기록(non records)’을 배제하는 일이다. 사본 등 비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가 평가 대상 기록이다. 그 다음 다양한 기준 예컨대 생산 시의 사정이나 학술 연구 등의 추가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다시 일부 기록을 골라낸다. 기존 평가론의 핵심 내용은 이 기준들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²⁰⁾ 이를 통해 비로소 가치 있는 기록 즉 보존기록(archives)이 구축된다.²¹⁾ 전체 생산 기록에서 평가 대상 기록으로 그리고 다시 보존기록으로 압축하는 과정은 가치라는 추상적 관념을 기록 실물과 일치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략 2에서 10퍼센트 정도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폐기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같은 방식은 데이터 형 기록에는 맞지 않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비 기록’의 기준부터 달라질 수 있다. 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던 ‘사본’은 데이터 형 기록의 경우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각종 정보시스템에서 재현되는 기록들 일체는 정보시스템 설계 목적의 맥락들이 데이터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본이라고 간주된 것에도 일정한 의미가 포착될 수 있다.²²⁾ 또

-
- 19) 한국은 전자문서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묶어 객체화한 기록을 물리적으로 이관하는 정책을 15년 넘게 유지해 왔다. 현재 이는 기록에서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행정정보 데이터셋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관할권만 이전하는 ‘논리적’ 이관을 이관방식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몇 년 전부터 검토해 왔다.(국가기록원, 2018)
 - 20) 젠킨슨의 비평가주의는 골라내기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생산자가 해야 한다고 했을 뿐이다.
 - 21) 이와 관련하여 기록의 존재와 부존재를 둘러싼 논쟁이 있어왔다. 정통 기록학에서는 보존기록을 권위와 가치의 상징으로 본 반면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은 기록 부존재에 의도적 배제의 정치학이 있음을 주목했다.(이승억 2013, 198-201)

한 저장 비용이 매우 저렴해진 관계로 보존이 폐기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데 물리적 선별을 배제한 평가 즉, 모든 기록을 유지하는 평가는 타당한 것인가? 기존 평가라면 이는 형식 논리적 모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별을 배제한 기록 평가를 정당화하려면 차원을 달리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과학자 짐 그레이(Jim Gray)가 2009년 주장한 데이터에 기반 한 과학 패러다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방법론 측면에서 과학을 네 가지 패러다임으로 구분하였는데, 제1 패러다임인 관찰과학, 제2 패러다임인 이론과학, 제3 패러다임인 계산(computation)과학, 그리고 제4 패러다임인 데이터 탐구(exploration) 과학 등이 그것이다. 이 패러다임들의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만재 2011, 51-52).

〈표 5〉 짐 그레이가 제시한 네 가지 과학 패러다임의 특성

구분	특성	발생시기
관찰과학 패러다임	실험 도구를 통한 대상의 관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	수천년전
이론과학 패러다임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을 통해 문제를 해결	수백년전
계산과학 패러다임	복잡한 현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 해석, 문제를 해결	몇 십년 전
데이터 탐구 과학 패러다임	조사(survey) 장치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을 도출. 기존 패러다임의 실험, 이론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데이터 탐구에 접목.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과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시됨	최근

기존의 평가는 가치론이나 속성론 등 이론적 모델을 사용한 해석적 평가

22) 정보시스템의 사본 대부분은 맥락화된 사본(contextualized copy)이다. 필자는 미 국립 기록청의 문서철에 같은 자료 여러 건이 들어 있는 것을 본 적 있다. 자료는 복사물이었지만 참석자들의 메모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보존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는 선별보다는 보존에 드는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데이터 형 기록의 폐기가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도 같은 견지이다.

라는 점에서 이론과학 패러다임에 가깝다. 방대한 기록정보 생태계에 존재하는 데이터 형 기록의 평가는 이론과학 패러다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방대한 데이터 형 기록은 특정 이론에 의해 구현되는 선별형 보존기록으로 포괄되기 어렵다. 대신 데이터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평가가 그나마 합리적이다.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으로서 데이터과학 패러다임을 검토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방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 한 보존기록 평가 패러다임 전환의 영향은 무엇보다 평가 산출물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존의 평가 결과가 특정 가치를 구현한 보존기록 자체였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 결과는 일정한 의미와 실제 기록 사이의 관계에 관한 정보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가치나 의미에 근거한 데이터 형 기록의 분포 위치와 시계열적 계통에 관한 정보가 될 것이다. 생산 기록 대부분을 배제하고 일부만 남기는 것이 기존의 평가라면 존재하는 기록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미들에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의 평가이다.

데이터 과학 패러다임 평가의 관건은 데이터 탐구 수단에 있다. 이 수단의 작동은 데이터 탐구가 목표로 하는 바를 담은 준거들에 의해 조율된다. 기존 평가에서는 원본, 출처, 원질서, 속성 등과 같은 것들이 그것에 해당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새로운 준거가 필요하다. 데이터 형 기록의 평가는 물리적인 기록 대신 일정한 의미와 그에 해당하는 기록 사이의 관계성이라는 추상적 정보를 산출로 한다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준거도 이러한 특성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시론적으로 기록에 담긴 질적 의미를 뜻하는 내포(內包)와 그 내포에 담긴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로서의 기록 집합을 뜻하는 외연(外延)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내포와 외연은 철학이나 논리학, 수학의 집합론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내포는 다수의 대상으로부터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특성을, 외연은 내포로 정의되는 속성을 공유하는 개체의 집합을 의미한다.²³⁾ 보존기록 평가론의 맥락에서 내포는 하나의 구분 가능한 추상적 의미를 외연은 그것을 충족하

는 기록들을 말한다. 출처나 원질서, 유형별 가치 등 기존 증거는 그것에 해당 하는 특정하고 유일한 기록과 접목 되는 반면 내포와 외연을 준거로 하는 평가는 관계성 자체가 표상 대상이다. 평가 결과가 물리적 선별과 보존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내포와 외연은 일대 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의미는 다수의 기록에 적용될 수 있고, 동시에 하나의 개별 기록이 다수의 의미와 접목될 수 있는 다중 관계이다. 다음 <표 6>은 이러한 내포와 외연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데이터 형 기록 평가에서의 내포와 외연의 특성

구분	특성 및 예시
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화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구분 가능한 의미 · 공공 기관의 기능, 업무, 특정 프로젝트. 정책 그리고 시민에 미치는 영향 · 공공 기관의 운영과 활동의 설명책임성 · 중요 사건, 재난의 경위.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시민의 반응 ·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 단체의 활동
외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포의 속성에 따라 유형, 위치, 계통을 공유하는 케이스 기록의 집합 · 데이터베이스, 비정형 데이터 파일, 반정형 등 데이터의 종류(유형) · 정부기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의 기록 위치 · 각 위치에서의 기록과 관계의 유래(계통)

내포와 외연은 기록의 의미 계통과 분포를 추적하기 위한 인식 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첩된 내포와 외연의 관계에서 기록

- 23) 내포(內包)는 어떤 속성을 의미하며 영어로는 connotation이나 intention으로 표현한다. 외연은 주어진 의미를 공유하는 개체의 집합으로 영어로는 denotation이나 extension으로 표현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소를 예를 들면, 다리가 네 개이며, 퇴새김질을 하며, 논농사의 동력원이자 단백질 공급원인 초식 포유동물이라는 점들이 소의 내포라면 외연은 누렁소, 흑소 등 내포를 충족하는 사례의 집합이다. 외연이 일반화되어 양적 집계 가능하다면 내포는 질적 구별만 가능하다. 내포와 외연은 철학, 논리학, 문학 등에서 다소 다르게 정의한다. 예를 들어 문학에서는 외연을 사전에 정의된 일반적인 의미로 본 반면 같은 말이 특정 맥락의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는 내포를 사용한다. 이 글에서는 기록학의 맥락에서 기록화를 통해 의미화될 수 있는 것을 내포로 그러한 내포를 수용하는 케이스 기록의 집합을 외연이라고 보았다. 「철학사전」, 「과학사 사전」, 「문학비평용어사전」(이상 naver.com) 등을 참조.

의 가치를 추적하는 것이 데이터 형 기록을 평가하는 방식의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내포와 외연의 복합 관계 일체는 기록 생애주기 궤적 전반을 포괄하면서 독립적 정보 생태계로 존재한다. 데이터 형 기록의 평가는 이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일을 충족할 수 있는 보편적 컴퓨팅 파워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기록을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절차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데이터 형 기록에 대하여 법적 증빙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경우, 마치 종이기록 평가에 적용했던 실물가치(intrinsic value)와 같은 취지로 기록이 만들어진 당시의 조건과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선별과 물리적 격리와 이전, 보존 등의 조치가 평가와 더불어 취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방대한 연계망이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을 고려할 때 용이한 것이 아니며, 부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특정 데이터 형 기록의 물리적 선별과 보존이 실행되는 경우는 디지털 정보기술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신에 달라진 평가의 본질은 다음의 양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데이터 형 기록이 실재하는 물리적 생태계에 선별이나 보존 같은 조작을 가하는 대신 기록 생태계 그대로를 기저로 하여 그 표층에 가치나 의미를 실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다시 말해, 상호 연계되어 있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이원화된 생태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그것이다. 내포와 외연은 새로운 평가 준거이자 한편으로 가치와 의미의 생태계의 확인 나아가 이원화된 생태계 사이의 연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지표로 기능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아직 시론적 제안에 불과하다. 향후 내포와 외연의 하위 범주 그리고 그것들이 데이터 형 기록이 실재하는 생태계와 어떻게 접목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데이터 형 기록 평가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디지털 데이터 형 기록 평가론의 특징

	기존의 기록 평가	데이터 형 기록의 평가
평가 결과	가치의 구현물로서의 보존기록	기록 의미와 케이스 기록의 관계에 관한 정보
평가 준거	원본, 원질서, 속성, 가치	내포(개념화된 의미), 외연(사례 기록 집합)
절차의 성격	· 전체 생산 기록 중 일부만 보존 · 보존기록 구성을 위한 물리적 선별	· 내포와 외연의 연계 확인을 위한 데이터 탐구 · 선별보존을 배제한 생산 기록의 총량 유지

2) 탈 중심 평가체제로의 이행

국가 보존기록관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의 중심처라는 생각은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져 왔다. 그렇지만 이는 근대적 기록관리의 산물이기도 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등장하는 국가 보존기록관은 각 지에 분산 방치된 많은 양의 공공기록을 화재나 부패 등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조직과 건축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실용적 목적의 건축물과 조직 그리고 그 안에 보관된 기록에 대해 정부와 사회, 국민 권익 그리고 역사와 관련 있는 상징으로 까지 위상이 승격된 것은 20세기를 거치면서 일어난 일이다. 이 상징화도 논란이 되어 왔지만 디지털 정보기술 시대에 국가 보존기록관은 차원이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 자체가 곧 국가 보존기록관의 탈 중심화를 초래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국가 보존기록관 중심주의는 기술적 이슈 이전에 이념적 이슈였다. 국가 보존기록관의 구심력은 20세기를 거치면서 국가나 민족이라는 거대 서사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 가동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민간 주도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보존기록관이 독점한 기록 평가의 물리적 기반에 변동이 생겼다. 가장 중요한 점은 디지털 정보기술 혁신으로

사회의 다양한 비정부적 기록화 프로젝트가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1980년대 국가 보존기록관에서 시도된 사회적 기록화 계획에 비해 산발적이었지만 비정부적인 소수 공동체가 벌인 기록화 계획은 오히려 일정한 성과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Malkmus). 2011년 또한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 운동처럼 지도자나 지도 조직도 없는 시민운동이 민간이 공급한 사회관계망 인프라에 힘입어 기록화 운동을 실행할 수도 있었다(이현정, 2014).

물론 이러한 사례들로 국가 보존기록관 중심주의가 당장 붕괴할 것이라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그렇지만 이 사례들에서 인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록화의 원심력 증가를 국가 보존기록관 탈 중심화의 맥락으로 보기에에는 충분할 것 같다. 한편으로는 국가 보존기록관 스스로 변화 모색을 통해 온건한 탈 중심화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적인 정부라면 능동적으로 이러한 탈 중심화에 부합하는 보존기록 평가 정책을 고민하는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국가 보존기록관이 변모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다원화된 사회를 담을 수 있는 보편적 기록화 전략, 둘째 이 전략에 부합하는 실질적 기록 포착 수단 그리고 셋째, 다양한 소통 매커니즘으로 구성되는 동시대 기록화의 의사결정 장치이다(이승익 2014, 209). 변형된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하다. 기존의 평가는 보존기록관 스스로 모은 보존기록이 그 결과물이었으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해석이 국가 보존기록관 중심주의의 핵심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의 평가에서는 선별과 보존의 의미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의미의 계통과 분포를 광범위하게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평가 양상이 될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정보기술에 기반 한 탈중심적 평가의 특징이기도 할 것이다.

이념적으로 상징화된 국가 보존기록관은 현대 민주 사회에 부합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어떤 방식이든 사회의 다양한 정보 생산 주체와 거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록화의 협치 모델이 필요하다

다.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의 의미는 무엇보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이 예상된다는 점에 있다.

3)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존기록 평가 전문성 모형

디지털 기술과 기계 지능이 확산되면서 기존 기록 전문가의 역할과 정체성의 위기는 한층 심각해졌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 이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까? 근대적 기록관리와 관련한 전문 지식 특히, 평가와 관련 지식에서는 중심의 이동이 있었다. 기록의 내용을 중시하는 이른바 전통주의에 대하여 기능과 업무 같은 배경을 중시하는 기능주의가 대두된 것이 대표적이다. 기능주의는 전통주의 아키비스트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기능주의자와 전통주의자의 견해 차이는 기능주의자와 일반 행정가의 차이보다도 더 크게 보일 정도였다.²⁴⁾ 그렇지만 이 갈등은 당사자 모두 같은 기록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의식을 공유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정은 다르다. 디지털 공학은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기록학이 포괄해 온 학문분야가 아니었다. 디지털 이전의 기록 관리에서 기술은 수단에 불과했지만, 디지털 기술은 그보다 큰 규정적인 요인이었다. 당연히 기록 전문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지식, 제도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²⁵⁾

전문 지식과 그에 기반한 배타적 권한은 전문직 체제의 중요한 축이다. 한국에서는 대학원 수준의 학력으로 진입 장벽을 두고 직무를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공공기록 관리에서의 전문직 체제를 보장해 왔다. 그런데 디지털

24) 네덜란드는 기능 기반의 '피벗(PIVOT)'이라 부른 평가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를 주도한 전문가는 '피벗 관리자'라고 별도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이들은 전통적인 아키비스트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Horseman). 캐나다에서도 기능주의와 전통주의의 갈등이 있었다.

25) 직무 윤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판단 규범이다. 직무 능력은 전문직에 필요한 지식과 실행 기법이며, 제도는 전문가 체제가 잘 작동하도록 진입장벽을 갖춘 배타적 권한을 구현한 것이다.

기록은 이 공고함에 점차 위협을 가했다. 이는 전문성 수용에서의 존속과 파괴 두 가지 양상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 존속의 양상은 기존 절차를 전산화하는 정보시스템 개발 과정에 전문직이 참여하는 완만한 변화를 의미한다. 2008년 이후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과 보급과정에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기록관리기관의 전문직들이 여기에 관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현행 법규나 규정을 전산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파괴의 양상은 기존 규범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야기된다.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기록은 등록, 분류, 편철 등에서 기존 법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불가능했다. 데이터 형 기록 자체는 기존 기록 유형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인사시스템의 데이터셋으로 변화되었으며, 종이 회계문서도 예산회계시스템 데이터셋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형태나 구조 그리고 관리 방식에서 신규 기록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 정부는 결재문서를 매우 다양한 정보들로 구성되는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지 15년이 넘었다. 이 메가 시스템의 운영에 기술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록의 생산과 관리 전반을 관장해 온 기록전문직이 느끼는 위화감도 함께 커졌다. 이제까지 공공분야에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의 전개 양상은 기록전문직의 처지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기록 전문성 수용 여건이 존속 측면보다는 파괴의 측면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우려된다.²⁶⁾

이러한 비관적 현상에 직면한 기록 전문직으로서는 전문성의 수용방식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스킨드(Susskind)가 제시한 전문성의 생산 및 분배 모형 중 '지식 내장 모형'과 '경험 공동체

26) 사실 이는 의료, 법률, 교육 등 다른 전문 분야도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의료의 경우 기존에는 인간 의사와 질병을 가진 환자 사이에서 전문 의료진이 있었다면, 디지털 의료는 잠재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적 전문성이 중심이 되고 이를 돕는 다수의 준전문가들이 등장했다.

모형'은 이러한 고민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서의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²⁷⁾

지식 내장 모형은 한마디로 기록관리 지식을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부로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록관리 전문 지식의 행사 방식을 인적인 직접 수행에서 기계나 설비의 작동으로 기능화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데이터 형 기록의 생산과 색인화, 의미 배열 등 평가관련 기능을 기계 지능이 이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정보시스템에 내장하는 것이다. 이 지식의 형식은 물론 특정 기계에 특화된 것으로 기존의 기계 중립적인 보편 지식과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록 전문성의 구성도 인간 영역과 자율 기계의 영역으로 구분될 것이며, 인간 영역은 다시 지식을 설계하는 소수 전문가와 자율 기계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하는 준전문가로 구분될 것이다. 기계 지능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것을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복잡한 구성의 메가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형 기록에 대하여 생산 목적과 직결되어 있는 설명책임이나 기타 평가관련 위기관리 요건이 실시간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인적 기반의 전문성 수용 모형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영역이 기존의 인간 영역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전문성 수용 방식의 재배열로 새로운 영역의 전문성 분야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계 대 인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새로운 여건에서 기록 전문직이 자기 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식 내장 모형이 기록 생산기관 내부 매커니즘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경험 공동체 모형은 생산기관 밖에 있는 사회적 경험을 지식의 원천으로

27) 부자관계인 리처드(Richard)와 대니얼(Daniel) 두 서스킨드는 기술 환경에서의 전통적 전문성 재편과 관련하여 전문성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다음 7가지 포괄적 모형을 제시했다. 그것은 1. 전통적 모형, 2. 전문가 네트워크 모형, 3. 준전문가 모형, 4. 지식공학 모형, 5. 경험 공동체 모형, 6 지식 내장 모형, 7. 기계 생성 모형 등이 그것이다. 필자는 이 중 앞서 기술한 보존기록 평가의 분석과 종합의 방법론적 해법과 관련하여 각각 지식 내장형 모형과 경험 공동체 모형에 주목하였다.(Susskind, Richard & Daniel, 5장 7절 참조)

하여 전문성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 공동체 모형은 광범위한 사회관계망 데이터가 기반이며 발전 가능성도 거기에 있다. 경험 공동체 모형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기록 평가에 접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 방법의 평가와 관련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이 누적되면 하나의 루틴으로서 지식 내장 모형과 접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계 전문성과의 공존 문제와 별개로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는 기록에 관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권한을 분담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다. 협치(governance)의 중요성은 이념적 당위성 차원을 넘어선다. 국제 기록관리자협회(ARMA International)가 제시한 기록정보 관리 거버넌스 참조 모형은 하나의 강력한 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²⁸⁾ 20세기 초 대량 생산된 정부기록의 처분 문제는 기록전문가 집단에 전적으로 맡겨졌지만 21세기 디지털 정보기술 시대에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기록전문직들의 처지는 자신의 운명과 직관되는 치열한 싸움판을 구경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중요한 기록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대 정보시스템들로부터 기록전문가가 부당하게 소외되지 않았는지 지금부터라도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전문직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감안하면 기존 기록전문가에게 부정적인 변동이 생길 경우,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원인의 일부는 전문직들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야기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28) ARMA가 2011년 공개한 EDRM 정보거버넌스 참조모형을 말한다. 여기에는 설명책임성, 투명성, 무결성, 정보보호, 준수성(compliance), 이용가능성, 보유기간 책정, 처분 등 8개 영역과 업무, 정보기술, 기록정보관리, 법무 등 4개 분야의 전문성이 교차하는 협업 모델이 제시되었다. 자세한 것은 URL: www.edrm.net/wp-content/uploads/downloads/2011/12/White-paper-EDRM-Information-Governance-Reference-Model-IGRM-and-ARMAS-GARP-Principles-12-7-2011.pdf를 참조.

5. 맺음말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키비스트가 주관하는 평가 메커니즘이 여전히 최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절박한 의문이 제기였다. 디지털 정보기술의 영향으로 기존의 보존기록의 평가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기존 평가론이 지닌 한계가 디지털 정보기술에 힘입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점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술의 변화가 보존기록 평가를 패러다임 차원의 전환으로 이끌 것이다. 그 전환범위에는 이론 영역과 함께 국가 보존기록관 중심의 체제 그리고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도 포함될 것이다.

‘데이터 형 기록’과 그 기반인 ‘정보 하부구조’는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의 보존기록 평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터 형 기록은 데이터로서의 특성에 기록학의 정보적 특성이 복합된 논리적 실체의 기록을 말한다. 또한 정보 하부구조는 정보의 생산과 활용, 전송, 저장 등을 지원하는 인적, 물적, 개념적 자원 전반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정보기술의 정보사회사적 특성, 데이터 형 기록의 미시 구조 그리고 데이터 과학 패러다임 등 중요 논점이 도출될 수 있고 나아가 평가에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디지털 정보기술 시대로 이행하면서 기록의 서사성이나 기록학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해석에 의한 평가에서 설계에 의한 평가로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데이터 형 기록은 재현된 기록 이면에 있는 다중 연계 구조로 인해 특정 기록을 물리적으로 선별할 경우 다른 기록의 재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물리적 선별의 제약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형 기록의 평가는 가능한 한 생산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나아가 중층적 의미나 가치를 가늠하는 새로운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보 하부구조의 방대한 데이터의 분석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컴퓨팅 파워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존기록 평가 방법론으로서 생산의 '분석'과 생산 외부의 '종합'은 평가의 성격을 구분하는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평가론의 성격과 한계 그리고 가능성을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험은 1991년 근대 기록학의 다양한 평가론을 기록의 속성이나 가치, 사회표상 등 기록에 대한 실로 다양한 사고의 산실로 묘사했다. 이는 비록 디지털 기술에 의한 기록관리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시각이지만 디지털 환경에서의 평가와 관련한 아이디어로 접목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볼스와 테리 쿡은 200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이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각하였다. 특히 볼스는 정부의 거대 정보시스템이 기록 관리에 접목되면서 정부 중심의 폐쇄적인 보존기록 평가 메커니즘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한편 테리 쿡은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의 전환기적 특성이 보존기록 평가에서 다원화된 사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을 공동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서 평가론의 전환은 평가론의 주요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이론 패러다임, 평가 주체로서 보존기록관과 기록전문가의 문제를 통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하부구조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평가론의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겠지만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의 보존기록 평가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짐 그레이가 제기한 데이터 과학 패러다임은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 과학 패러다임에 의한 평가는 물리적 선별을 병행하는 평가와는 다른 준거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화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담은 '내포'와 내포의 속성을 공유하는 케이스 기록의 집합인 '외연' 사이의 다중 관계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은 기록에 대한 직접적인 조작을 가급적 배제하고 데이터 형 기록이 존재하는 물리적 생태계와 그 표층에 존재하는 의미나 가치를 실제로 하여 조성되는 생태계의 존재론적 이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

이 될 것이다.

한편 국가 보존기록관 중심주의에 입각한 보존기록 평가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포괄적인 기록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바람직한 진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정보 생산 주체와 거점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적 기록화를 목표로 하는 협치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기존의 기록 전문성의 위기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데이터 형 기록의 평가에서는 새로운 기록 전문성 수용 모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스킨드의 ‘지식 내장 모형’과 ‘경험 공동체 모형’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두 모형에는 각각 분석적 방법과 종합적 방법에 상응하는 실용적 의의와 함께 디지털 시대 기록 평가를 하는 전문직의 변모와 생존에 대한 실마리도 담겨 있다. 디지털 환경의 기록 전문성 수용 모형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디지털 정보 기술은 기존 평가의 한계 보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계기라는 점이 좀 더 본질적인 측면이다. 평가는 전통적으로 아키비스트가 그 전반을 책임져 온 기록관리 핵심 분야였다. 이는 아키비스트가 기록 생산자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가교이며 정직한 중개인이라고 한 테리 쿡의 말이나, 보존기록관 이용자들은 아키비스트가 내주는 메뉴판에서 식사를 주문해야 한다고 한 지머슨의 농담 같은 비유에도 담겨 있다(Cook 2006, 170; Jimerson, 38).

그렇지만 디지털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수사들은 보존기록 평가가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특정 시대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 기록학의 보존기록 평가는 20세기와 21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체제이며 문화이지만 근대 이전 세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불과 몇 십년 전만해도 인터넷 정보 검색이 기존 탐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처럼 보존기록 평가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현 세대인 우리가 예

측하기란 쉽지 않다. 혹자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디지털 정보기술 시대의 평가는 우리 세대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양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이론은 물론 기초 용어부터 달라질지 모른다. 그렇다고 불가지론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금으로서는 예상이 어려운 보존기록 평가 방식이 생각보다 빨리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을 뿐이다. 격변의 시점에 평가의 변화를 단편적으로나마 예측하고 대응하려면 본질적인 것과 당대에 한정될 것이 무엇인지를 충실히 논구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20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계획(정책기획과-1513호).
- 국가기록원. 2020.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기준 기록관리기준표 및 이관규격(기록관리 공공표준 NAK 35 2020(v1.0)).
- 설문원. 2019. 기록이란 무엇인가 : 활동의 고정적 재현물로서의 개념 탐구. 『기록학연구』, 59, 5-46.
- 유현주. 2020. 프리드리히 키틀러, 매체는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바꾸는가. 김환석 외.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 전 지구적 공존을 위한 사유의 대전환』. 이성과 감성.
- 이만재. 2011. 빅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활용, 『Internet & Information Security』, 2(2).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승억. 2005.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2, 37-80.
- 이승억. 2013. 경계밖의 수용 :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연구』, 38, 189-223.
- 이승억. 2014. 동시대의 기록화를 지향한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제언. 『기록학연구』, 42, 185-211.
- 이승억, 설문원. 2017. 전자기록관리정책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2, 5-37.
- 이토 마모루 저. 2016. 김미정 역. 『정동의 힘 : 미디어와 공진하는 신체』. 갈무.
- 이종관, 박승억, 김종규, 임형택. 2013. 『디지털 철학 : 디지털 컨버전스와 미래의 철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현정. 2014. 기록학 실천주의의 과제와 전망: 월가 점령운동의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2, 213-243.

- 현문수. 2020. 국가 기록 평가의 관점에서 본 기록관리기준표 분석: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제12회 기록인대회 발표문(2020. 11. 21. 온라인 발표).
- Abraham, Terry. 1991.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American Archivist* 54(1), 44-52.
- Abraham, Terry. 1995. Documentation Strategies: A Decade (or More) later,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AA Washington D.C., August 31 1995.
- Boles, Frank & Young, J Mark. 1985. Exploring the Black Box: The Appraisal of University Administrative Records. *American Archivist* 48, 121-140.
- Boles, Frank. 2005. Selecting and Appraisal Archives and Manuscript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Boles, Frank. 1996. Et Tu Schellenberg? Thoughts on the Dagger of American Archival Theory. *American Archivist* 59, 298-310.(오향녕 역. 『기록학의 평가론』. 진리탐구, 305-328)
- Booms, Hans. 1987.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 *Archivaria* 24, 69-107.(오향녕 역. 2005. 『기록학의 평가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진리탐구, 159-221)
- Booms, Hans. 1991. Uberlieferungsbildung: Keeping Archivse as a Social and Political Activity. *Archivaria*, 33, 25-33.
- Cook, Terry. 1992. Documentation Strategy. *Achivaria*, 34, 181-191.
- Cook, Terry. 2001. Fashionable Nonsense or Professional Rebirth: Postmodernism and the Practice of Archives. *Archivaria*, 51(2), 14-35.
- Cook, Terry. 2004.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Documenting Governance rather than Govern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5, 5-18.
- Cook, Terry. 2006. Remembering the Future: Appraisal of records and the role of archives in constructing social memory. Francis Blouin Jr. & William Rosenberg eds. *Documentation and Institutions of Social Memory: Essay from the Sawyer Semina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 Cook, Terry. 2013.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13(2), 95-120.
- Cox, Richard. 1989. A Documentation Strategy Case Study: Western New York. *American Archivist* 52, 192-200.
- Duranti, Luciana.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American Archivist*, 57: 328-344.(오향녕 역, 2005. 『기록학의 평가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진리탐구, 275-304)

- Foscarini, Fiorella. 2017. Archival Appraisal in Four Paradigms. In: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Heather MacNeil, & Terry Eastwood eds. Libraries Unlimited, 107-133.
- Hackman, Larry & Joan Warnow-Blewett. 1987.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 Model and a Case study. American Archivist, 50, 12-47.
- Ham, Gerald. 1975. The Archival Edge. American Archivist, 38(1), 5-13.
- Ham, Gerald. 1991.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강경무·김상민 역.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평가와 선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진리탐구)
- Horseman, Peter. 1997. Appraisal on Wooden Shoes, The Netherlands PIVOT project. JANUS, 2, 35-41.
- ISO. 2018. ISO/TR 21946: 2018.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Appraisal for Managing Records.
- Jimerson, Randal. 2009.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Amer Library Assn.(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 2016. 『기록의 힘 : 기억, 설명 책임성, 사회 적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Library and Archives Canada. 2001. Appraisal methodology: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Part A: Concept and theory. Library and Archives Canada.
- Malkmus, Doris. 2008. Documentation Strategy: Mastodon or Retro-Success? American Archivist 71, 384-409.
- Ong, J Walter. 2012. Orality and Literacy. Routledge.(임명진 역, 2018.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 Susskind, Richard & Susskind, Daniel. 2015.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 How the Technology transform the Work of Human Experts. Oxford University Press. (위대선 역. 2016. 『4차 산업혁명시대, 전문직의 미래』. 와이즈베리.)
- Schellenberg, T. R. 1956. The Appraisal of Modern Public Records. National Archives Bulletin 8. NARS.(오향녕 역. 2005. 『기록학의 평가론』. 진리탐구, 29-47)
- Tegmark, Max. 2018. Life 3.0: Being Huma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enguin Books.(백우진 역. 2018. 『라이프 3.0』. 동아시아.)